

〈 資 料 〉

公州甲寺所藏 月印釋譜第二十一板木 發見調査

朴 容 埴

目 次

- I. 머리말
- II. 調査經緯
- III. 調査者
- IV. 調査現狀
- V. 參 考

I. 머리말

1974年 5月과 9月 公州教育大學 博物館은 年例의 地域調査作業의 하나로 鷄龍山西部地域의 佛敎遺蹟調査를 實施한바 있다.

5月에는 國立公州博物館과 共同으로 下獅子庵址를 發見調査하였고, 그곳에서 寶物 257號로 指定된 甲寺浮屠의 原位置와 또한 甲寺에서 大寂殿으로 건너가는 溪谷길가의 三層石塔인 俗稱 甲寺功牛塔의 原位置와 塔基壇部의 石材를 發見調査하였다.

9月에는 公州郡文化公報室과 合同으로 甲寺에서 宣祖二年에 開板된 月印釋譜板을 發見하고 이를 調査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되었다. 甲寺所藏 月印釋譜板은 所重한 佛敎文化財일 뿐만 아니라 國語學史上 매우 比重이 무거운 學術的 價値가 있는 板刻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國語學者들에 의한 專門的인 研究分析을 期待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調査當時의 現狀을 概括하여 記錄함으로써 一資料로 提供코자 한다.

本調査를 위하여 協助하여 준 甲寺와 公州郡文化公報室 諸位 및 調査에 參與하여 도와 주신 여러분에게 感謝한다.

II. 調査經緯

筆者는 平素 公州鷄龍山甲寺에 月印千江之曲 또는 月印釋譜板이 所藏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왔으나 實物을 보고 確証할 機會를 갖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1974年 9月 3日 公州郡文化公報室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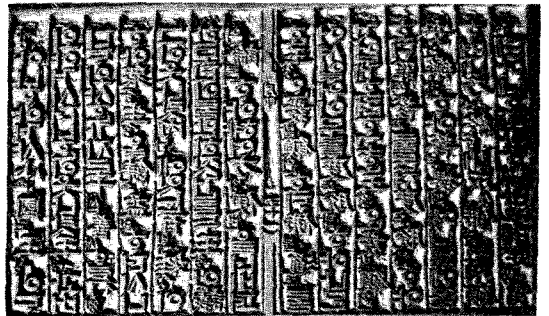


圖 1.月印釋譜 第二十一板 五十一張

계 鷄龍山西部地域 佛教遺蹟調査次 甲寺에 들렀다가 大雄殿內 經板庫에 收藏된 經板들을 參觀하게 되었다.

그 中에서 月印釋譜板을 發見確認하고 장이두 住持僧의 好意와 特別配慮로 이를 調査할 수 있는 榮光을 얻게 되었다. 僧侶들의 말에 依하면 그 동안 數次에 걸쳐 學者들에게 月印釋譜板이 보여졌다 한다. 그러나 甲寺所藏 月印釋譜板이 學界에 紹介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日에는 月印釋譜 最終張板記에서 甲寺所藏 月印釋譜板이 月印釋譜第二十一板임을 發見 確証하게 되었다. 또한 開板記에서 雙溪寺板임과 宣祖二年(1569)에 板刻된 매우 所重한 文化財임과 아울러 學術的價値가 있는 板刻 資料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9 月 11 日에 「公州甲寺所藏 月印釋譜板 發見調査略報告」를 有關機關에 提出報告하고 語文學史上 重要性을 指摘한 바 있었다.

그 뒤 1974年12月31日 政府에서는 「公州甲寺所藏 月印釋譜板木」을 582號 寶物로 指定하고, 指定文化財로 保護管理하게 되었다.

Ⅲ. 調査者

公州教育大學博物館長 朴容填教授

公州教育大學 趙榮東教授

公州鷄龍山甲寺 장이두住持

公州郡 文化公報室 申光澈室長

公州郡 文化公報室 金鍾德係長

그 밖에 公州教育大學 權赫男教授와 公州教育大學 學生 강숙진·한완수 嬢이 調査에 參與하여 도와주었고 公州郡文化公報室 俞輔根技士가 撮影을 擔當하였다.

Ⅳ. 調査現狀

1. 甲寺所藏 月印釋譜板은 그 最終張板記에서 「月印千江之曲第二十一 釋譜詳節第二十一摠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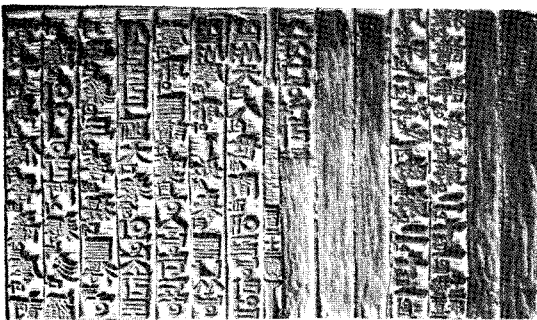


圖 2. 月印釋譜 第二十一板 最終張인 二百二十二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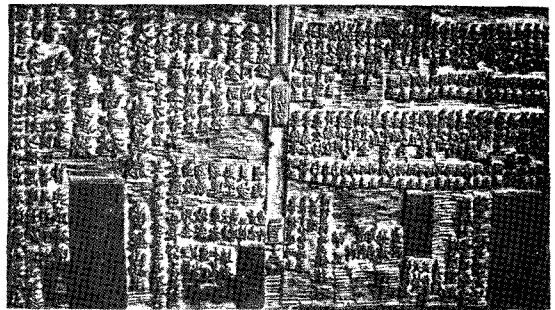


圖 3. 月印釋譜 最終別張 開板記

百二十二張」이라고 板刻되고 있어, 月印釋譜第二十一임과 總 2 2 2 張으로 板刻構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甲寺所藏 月印釋譜第二十一板은 그 板末의 開板記에서 「隆慶三年 己巳二月日 忠清道 寒山地 竹山里 白介万家 浸刻以傳 恩津地 佛明山 雙溪寺 留置……」라고 되어 있어 元來 雙溪寺板임을 알 수 있다. 「隆慶三年」은 朝鮮宣祖二年(1569)이다. 그리고 「忠清道 寒山地 竹山里……佛明山 雙溪寺」는 現 忠清南道 論山郡 可也谷面 中山리에 位置하고 있는 雙溪寺를 가리키며, 大施主者 白介万의 집에서 浸木에 刻字하여 雙溪寺에 留置하였다는 것이다.

3. 現 甲寺所藏 雙溪寺板 月印釋譜第二十一은 모두 31枚다. 張數로는 板末의 開板記(223張)까지 傳하여 119張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04張이 缺張하고 있어서 26枚 가량의 板刻이 缺板된 셈이다. 그러나 缺板된 月印釋譜板의 所在는 現在로서는 確認되지 않고 있다.

4. 板式은 四周의 外區廓을 太線으로 陽刻하고 있으며, 세로 21cm, 가로 36.5cm의 크기이다. 좁은 間隔으로 마련된 板心은 上下部位를 太縱線으로 陽刻하고, 上下內向의 黑魚尾로 裝飾한 張中央의 空間은 上端에 「月印」, 下端에 張 숫자를 表記하고 있다. 內區面은 細縱線刻하여 一面을 7行으로 區劃하고, 一行에는 15字꼴의 글자를 새겼다. 註釋은 細字 雙行이다.

5. 板外區廓 밖 右側下端에 施主者名을, 板心에 刻手者名을 밝힌 것이 있어 注目된다.

V. 參 考

1. 月印釋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世宗29年(正統12年, 1447年)에 刊行된 「釋譜詳節」과 世宗31年에 刊行된 「月印千江之曲」을 合編하여 世祖가 父王·母后·長子 등의 追薦을 위하여 그 5年(天順3年, 1459年)에 편찬 간행한 것이다.

2. 甲寺所藏 雙溪寺板 月印釋譜第二十一은 前記한 바와 같이 「隆慶三年」으로 板記되고 있어 朝鮮宣祖二年(1569)에 板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世祖 때 刊行된 月印釋譜보다는 110年 뒤진 覆刻板인 것이다.

3. 內容表記에 있어서는 傍點과 字劃의 刊缺 등 變改된 部分을 發見할 수 있고, 最終別張 開板記의 施主者 또는 다른 人名에서 吏讀式 表記가 남아 있어 國語學變遷研究에 所重한 學術資料가 될 것이다.

또한 壬辰倭亂 以前의 板刻임과 6. 25事變으로 燒失된 「隆慶二年 戊辰十月日 慶尚道 豊基地 喜方寺 開刊板」인 月印釋譜第一·二板 등과 함께 語文學研究上 무거운 比重을 갖는 板刻으로 思料된다.

4. 雙溪寺板 月印釋譜第二十一이 甲寺에 所藏하게 된 것은 70餘年前의 일이라고 甲寺 장이두 主持僧이 傳한다.

5. 現存하는 119張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1, 12, 13, 14, 19, 20, 21, 2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7, 68, 69, 70, 71,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5, 96, 97,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214, 215, 216, 217, 222, 223.